

Z플립3 & Z플립4

Z플립3

디스플레이

- 아이폰 유저들도 Z플립 3으로 갈아 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옴.
- 가장 이색적인 면을 꺾자 하면 디스플레이 외부 디스플레이에 움짤 일명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어 꾸미는 것이 재미.
- 메인 디스플레이 꺼진 화면에선 주름이 부각 돼 보였지만,화면을 켜를 땐 빛 때문인지 주름 티가 거의 나지 않았다.

카메라

-전면 1000만 화소, 후면은 1200만 화소를 적용

배터리

-3300Mah 이며 전작과 동일한 용량.

배터리 사용시간

- 화면을 켜 둔 상태에서 100에서 0까지 5시간 30분 걸리고, 5G를 연속으로 했을 때 4~5시간 정도 사용 된다고 실험한 자료가 있다.
- 고속 충전은 15w까지 지원 되며 무선 충전시 최대 10w까지 지원 된다고 함. 이부분도 배터리 소모량에 비해 아쉬움.

방수

- IPX 8등급으로 1.5M에서 30분간 물속에서 있어도 방수가 가능하다고 함.
- IPX 8등급은 생활 방수는 완벽하게 가능함.

Z플립4

Z플립3이 나온 지 12개월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삼성은 작년 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.

이번에 출시된 Z플립 4는 이전 시대 제품을 조금 업데이트한 수준이며, "혁명" 보다는 "반복" 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제품.

디자인

Z플립4는 작년에 나온 Z플립3 디자인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유지했다.

Z플립4의 기본 색상은 4가지로 보라 퍼플, 블루, 핑크골드, 그라 파이트를 지원.

이번에 가시 도입된 '비스포크 에디션'을 이용하면 더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.

외관

플레임을 "아머 알루미늄"으로 제작. 필자는 이전에 Z플립 3을 높은 곳에서 떨어트려서 현지 생태를 확인한 바 있는데 손상되지 않을 정보를 아주 견고했다.

디스플레이

삼성은 기술적으로 작년과 다른 패널을 사용했다고 말했지만, 품질보다는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꾼 측면이 크다.

펼쳤을 때 가늠 같은 크기의 화면이 적용된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 해보면 Z플립4는 더 얇고 가벼움.

오디오

Z플립4에는 한 쌍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만 헤드폰 잭은 없다.

스피커는 견고하고 동시에 평범하다.

잠시 음악이나 게임을 즐기기에는 좋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를 대체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.

사양과 기능

최신 프로세서인 스냅 드래곤 8+ Gen 1을 탑재했다, 8+ Gen 1 탑재한 타사 스마트폰과 비교해 가장 빠른 성능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

일반적인 사용 범위 안에서는 Z플립4는 결합이 거의 없으며, 까다로운 게이머 정도만 성능에 불만을 가질 것이다.

스토리지 용량을 256GB와 512GB에서 선택할 수 있다. 확장형 마이크로SD 카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큰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,

배터리와 충전

필자가 Z플립 4를 사용해본 결과, 잠자리에 들 때 스마트폰 30~40% 남아있는 정도로 큰 불편이 없었다.

충전 성능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경쟁 제품과 비교해보면 아직은 부족하다. 작년에 15W를 지원하던 Z플립은 이번 시대부터 25W를 지원한다.

Z플립3, 플립4 뭐가 달라졌을까

1.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뀜.

2.카메라

-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진 않았지만 전작 대비65% 더 밝은 센서를 장착해 야간 촬영 품질을 높였다.

3.배터리

- 전작 플립 3보다 400mAh 늘어난 3700mAh 용량을 탑재하고 충전 속도도 전작 보다 빨라져 25W 고속 충전을 지원

4.디스플레이

-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하는 등 갤럭시 플립 기기를 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플립4에서 추가됨, 비디오 또는 GIF 배경을 추가 가능.

Z플립 추천/ 비추천 대상

추천대상

- 예전 폴더 폰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
- 다양한 케이스 쓰기 좋아하는 분
- 셀카 찍기 좋아하는 분

비추천 대상

- 고성능 게임/ 유튜브 많이 보는 분(배터리 더 빨리 닳을 수 있음)
- 카드 케이스 사용하는 분
- 폰을 잘 떨어트리는 분(고리 달린 케이스 사용한다면 문제 X)
- 일상에서 수시로 충전하기 어려운 분